

민주, '집권시 적폐수사'尹 발언 맹공...“정치보복 선언 규탄”

검찰권력자의 오만본색 망언 배우자는 언론·남편은 정치보복 '본부장' 의혹 재점화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을 맹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A 검사장'에 대해선 '이 정권의 피해를 보고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선대위는 이날 오전 9시 총괄선대본부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우 본부장은 긴급 성명서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권력자의 오만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면서 "윤 후보는 정치보복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선대위는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엄중히 인식하고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논평과 브리핑, 개별 의원들의 SNS를 통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승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가 집권하기도 전에 정치보복부터 공개 천명했다"면서 "문재인 정

부는 적폐라고 미리 결론부터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것이냐.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화신답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인용, "김씨도 녹취록에서 집권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했다. 배우자는 언론보복을 공언하고, 남편은 정치보복을 선언하니 부부가 공표정치를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어디 빗발 데가 없어 독립운동가에 빗대느냐. 독립운동을 위해 피땀 흘린 모든 분에 대한 모욕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벌써 측근 챙기거나"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놓고 정치보복을 선언한 셈이다. 대통령이 되면 최측근들을 검찰 최고위직에 앉힌 뒤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전 정권 사람들을 제대로 손보겠다는 정치보복을 예고한 것

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산적한 국정과제와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며 허구한 날 검찰권을 무기로 복수혈전을 치르며 날을 지새울 게 예상되는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 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도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SNS에서 윤 후보가 전날 공개된 정권교체행동위 인터뷰 동영상에서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완전히 무법천지였다"고 설명한 데 대해 "평화적 집회가 무법이니. '씩'다 잡아넣겠다'는 협박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와 처가를 조준해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됐다.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회 회의에서 "본부장 비리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이어지

고 있다"면서 "본인의 가족도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후보가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지난 4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선수들의 재판에서 (주가)작전 계좌에 김씨 계좌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성명서에서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2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차명 보유에 대해 사죄는커녕 적법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북 콘서트 참석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김근식 교수의 대북정책 관련 북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판기념회 풍경, 코로나가 바꾸다

기념식·강연 대신 저자 사인회 참여 인원 분산 7시간 행사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출판기념회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출판기념회는 출마 예정자들이 대규모 인원 초청으로 자신의 세 과시에 중점을 뒀다면, 현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조촐하게 진행하고 있다. 인원이 몰릴 수 있는 강연이나, 기념식을 없애고 출판기념회 시간을 최대한 늘려 참여 인원을 분산하거나 야외에서 진행되는 이색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제선에 도전하는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자 사인회를 갖는다. 인원이 많이 몰리는 출판기념회 대신 저자 사인회로 대체한 것이다. 임 정장은 조선대 미술관에서 광주 원도심 동구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현직 구청장의 특별한 여행 안내서-내가 사랑한 광주, 원도심 동구편'을 출간하고 저자 사인회를 갖는다. 임 정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저자 사인회와 원도심 동구의 관광명소 30여 곳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광주대학교 호심관 1층 로비홀에서 취임 이후 남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위해 도전했던 기록을 엮은 '열정 그리고 진심'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가 아닌 저자 사인회로 대체한다.

두 구청장의 행사는 행사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7시간 동안 열여섯 명을 분산하고, 입장 인원도 제한하는 상황에서 워킹 스루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발급자, 코로나 19 완치자만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 서구청장에 도전하는 김이강 전광주시 대변인도 오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우뚝서구 함께 서구'에 대한 저자 사인회를 갖는다.

광주 동구청장에 도전하는 진선거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플랫폼 광주 공동본부장은 12일 동구 윤림제에서 북 콘서트 형식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야외에서 진행하며, 비가 오더라도 천막을 치고 진행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안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데...중도하차론 띄우는 국힘

국힘 "선거비용 부담 능력 없어" 국당 "10분만에 단일화 일방적"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9일 야권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가 선거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완주가 어렵다며 중도 하차를 압박했으며, 국민의당은 선거운동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 "(안 후보가) 2012년은 내가 양보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때는 본인이 역부족으로 그만둔 것"이라며 "본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역을 하겠지만 (안 후보의 선거 포기는) 패전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전국 250여개 지역에 정당 사무소를 마련하고 유세

차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아무리 최소화하더라도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라면 100억에서 200억 정도 써야 하는데 (안 후보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선거를 완주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TBS라디오에서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은 지지율이 이미 거의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단일화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윤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을 어떻게 전혀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느냐 또는 못 하느냐의 문제이지 단일화 자체를 과거처럼 대표단을 만들어서 약자지결하고 협상하고 이런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당 대 당 협상이 아닌 안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제자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안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담판 형식의 단일화에 대해 "(윤 후보 생각대로)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그

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것 자체가 좀 일방적인 생각을 갖고 계산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어떤 제안도 받은 게 없다면서 국민의 힘이 언론에 통해서만 단일화 메시지를 내는 행태가 "진정성이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선거비용 부담 때문에 선거운동 준비를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안 후보는 "저희는 지금 모든 등록 서류부터 선거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까지 선거사무소를 다 준비해서 15일 즉시 문제없이 선거운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현재 지역선대위 원장을 임명할 약 180개 지역 위주로 사무소를 준비하고 있고, 위원장이 없는 지역은 사무소 대신 유세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 디지털·혁신위, 오늘 광주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략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10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AI(인공지능) 도시 광주의 미래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참석자들과 차기 이재명 정부에서 광주시가 AI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 조성 관련 산업 융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 지역 자영

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풀뿌리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또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도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국회의원, 이용민(광주 광산구 갑)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층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신축원룸매매(신축)

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꿀(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

010-6670-9800